39개 신조 개정

취소선: 회의가 삭제하거나 바꾼 부분. 밑줄: 회의가 추가하거나 대신 넣은 부분.

잉글랜드 교회의 39개 신조에 관한 신학자 회의의 심의

의회에 모인 존경하는 하원에게.

신학자 회의는 그 첫 회기에 의회의 존경하는 양원으로부터 1643년 7월 5일자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잉글랜드 교회의 39개 신조 가운데 처음 열 개 신조를 심의하여, 그 교리를 모든 비방과 그릇된 해석으로부터 해방하고 옹호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순종하여 그들은 즉시 위의 처음 열 개 신조를 심의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그 다음 아홉 개 신조에 관한 또 하나의 명령을 받았고, 그에 따라 그것들도 심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두 명령에 의하여 오직 그것들을 해명하고 옹호하는 일에만 제한되었으므로, 그 목적을 위하여 얼마간의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았으나, 만일 그러한 제한 없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맡겨졌더라면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보다 더 적은 변경과 추가를 하였으니, 이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결함 있는 채로 남아 있고, 다른 표현들도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열다섯 개 신조를 마치는 데까지만 나아갔으니, 양원이 1643년 10월 12일자 명령으로 우리에게 나머지를 제쳐 두고 교회 정치의 작업에 착수하라고 요구하기를 기뻐하였고, 그 후에는 또 다른 명령으로 우리를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따라 세 왕국을 위한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 신앙고백에서 우리는 이전의 신조들에 있던 것 가운데 중요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것을 마치고 양원에 제출한 후, 우리는 이 열다섯 개 신조를 제출하는 일을 삼갔을 것이다(이것이 여러 면에서 불완전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전체가 오직 잉글랜드 교회에만 관련된 것이기도 하므로). 그러나 1646년 12월 7일자 존경하는 하원의 명령으로 달리 명령을 받았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제1조.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오직 한 분의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영원하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며,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신성의 통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오직 한[a] 분의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b] 계시니, 영원하시고[c], 몸이나 지체나[d] 성정이[e] 없으시며, 능력과[f] 지혜와[g] 선하심이[h] 무한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i]. 그리고 이 신성의 통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인 세 위격이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k].

a. 이사야 46:9; 고린도전서 8:4,6 · b. 예레미야 10:10; 데살로니가전서 1:9 · c. 시편 90:2; 로마서 16:26 · d. 신명기 4:15,16; 요한복음 4:24; 누가복음 24:39 · e. 사도행전 14:15; 야고보서 1:17 · f. 예레미야 32:17,27; 마가복음 10:27 · g. 시편 147:5; 로마서 11:33 · h. 시편 119:68; 마태복음 19:17 · i. 느헤미야 9:6; 골로새서 1:16,17 · k. 마태복음 3:16,17; 마태복음 28:19; 요한일서 5:7; 고린도후서 13:14.

제2조. 참 사람이 되신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시요,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셨으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니, 복되신 동정녀의 태 안에서 그녀의 본체로부터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리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결코 나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로써 한 그리스도, 곧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분이 계신다. 그는 진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죄의 죄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자범죄들을 위해서도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시요, 영원부터 성부에게서 나셨으며[a], 참되고[b]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c], 성부와 한 본체이시니[d], 복되신 동정녀의 태 안에서 그녀의 본체로부터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e]. 그리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결코 나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로써 한 그리스도, 곧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분이 계신다[f].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혼에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g],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니[h], 이는 그의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i], 원죄의 죄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자범죄들을 위해서도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k].

a. 잠언 8:22-31; 요한복음 1:1,2,14 · b. 요한일서 5:20; 로마서 9:5 · c. 요한복음 17:5; 히브리서 1:8; 시편 45:6 · d. 요한복음 10:30; 히브리서 1:3 · e. 요한복음 1:14; 이사야 7:14; 누가복음 1:35; 갈라디아서 4:4 · f. 이사야 7:14; 마태복음 1:23; 로마서 1:3,4; 히브리서 13:8 · g. 이사야 53:10,11; 마가복음 14:33,34 · h. 베드로전서 2:24; 빌립보서 2:8; 고린도전서 15:3,4 · i. 에스겔 16:63; 로마서 3:25; 고린도후서 5:19 · k. 이사야 53:10; 에베소서 5:2; 요한일서 1:7; 히브리서 9:26.

제3조.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처럼, 또한 믿어야 할 것은,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처럼, 믿어야 할 것은, 그가 죽은 자들의 상태에, 그리고 사망의 권세와 지배 아래[a],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때로부터 그의 부활 때까지[b] 계속 머무르셨다는 것이니, 이것이 달리 이렇게 표현되어 왔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다.

a. 시편 16:10; 사도행전 2:24,25,26,27,31 · b. 로마서 6:9; 마태복음 12:40.

제4조.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몸을 살과 뼈와 사람의 본성의 완전함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다시 취하셨으며,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 앉아 계시니,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a], 그의 몸을 살과 뼈와 사람의 본성의 완전함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다시 취하셨으며[b],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 앉아 계시니[c],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d] 때까지 그리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요[e], 몸의 보편적 부활 때에,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f].

a. 고린도전서 15:4; 로마서 8:34; 시편 16:10; 사도행전 2:31; 누가복음 24:34 · b. 누가복음 24:39; 요한복음 20:25,27 · c. 시편 68:18; 에베소서 4:8; 시편 110:1; 사도행전 2:34,35; 마가복음 16:19; 로마서 8:34 · d. 사도행전 3:21; 시편 110:1; 고린도전서 15:25,26; 사도행전 1:11 · e. 고린도후서 5:10; 사도행전 17:31 · f. 출애굽기 3:6; 누가복음 20:37,38; 사도행전 24:14,15; 고린도전서 15:12-58; 요한복음 5:28,29.

제5조. 성령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본체와 위엄과 영광이 하나이시며,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본체와[a] 위엄과[b] 영광이 하나이시며[c],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d].

a. 사무엘하 23:2,3; 이사야 6:5,8; 사도행전 28:25; 사도행전 5:3,4; 고린도전서 3:16; 고린도전서 6:19 · b. 욥기 26:13; 욥기 33:4; 고린도전서 12:1-31; 마태복음 28:19; 고린도후서 13:14 · c. 고린도전서 12:11; 에베소서 1:17; 고린도전서 2:8; 베드로전서 4:14 · d. 요한복음 15:26; 마태복음 10:20; 고린도전서 2:11,12; 갈라디아서 4:6; 로마서 8:9; 빌립보서 1:19; 요한복음 16:14; 이사야 11:2; 이사야 61:1; 창세기 1:2; 역대하 15:1.

제6조. 구원을 위한 성경의 충족성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읽을 수 없고 성경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도 요구할 것이 아니니, 곧 그것을~~ 신앙의 조항으로 믿어야 할 것도 아니요, ~~요긴하거나~~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도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결코 의심받은 적이 없는~~ 구약과 신약의 정경들을 이해한다.
~~정경들의 이름과 수에 관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제1서~~.
~~사무엘 제2서~~.
~~열왕기 제1서~~.
~~열왕기 제2서~~.
~~역대 제1서~~.
~~역대 제2서~~.
~~에스라 제1서~~.
~~에스라 제2서~~.
~~에스더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곧 설교자~~.
~~아가, 곧 솔로몬의 노래~~.
~~대선지서 4권~~.
~~소선지서 12권~~.
~~그리고 다른 책들은 (히에로니무스가 말하듯이) 교회가 생활의 본보기와 행실의 교훈을 위하여 읽지만, 어떤 교리를 세우는 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책들은 이러하다~~.
~~에스라 제3서~~.
~~에스라 제4서~~.
~~토비트서~~.
~~유딧서~~.
~~에스더서의 나머지~~.
~~지혜서~~.
~~시락의 아들 예수~~.
~~예언자 바룩~~.
~~세 아이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벨과 용에 관하여~~.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 제1서~~.
~~마카베오 제2서~~.
~~신약의~~ 모든 책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정경으로 여긴다~~.

성경은[a]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b]. 그러므로 성경에서 읽을 수 없고 성경으로 증명될 수도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신앙의 조항으로 믿어야 할 것도 아니요, 구원에 필요한 것도 아니다[c].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정경들을 이해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등. 신약으로는, 마태복음 등.
이 모든 책들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그런 점에서 가장 확실한 신빙성과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고 인정한다.

a. 로마서 1:2; 디모데후서 3:15; 베드로후서 1:20,21 · b. 시편 19:7; 디모데후서 3:15,16,17; 야고보서

1:21,25; 사도행전 20:32 · c. 잠언 30:5,6; 이사야 8:20; 사도행전 26:20,22,27; 갈라디아서 1:8,9; 요한복음 5:39.

제7조. 구약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구약은 신약과 상반되지 않으니,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니,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 조상들이 ~~덧없는~~ 약속들만을 바랐다고 꾸며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율법은, 의식과 예식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지 않으며, ~~그~~ 시민법적 규례들도 어느 국가에서든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도덕적이라 불리는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서 자유롭지 않다.

회의의 개정 (1647년)

구약은 그것들 안에 담긴 교리에 있어서 신약과 상반되지 않으니[a],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제시되기 때문이다[b].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니[c],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이다[d]. 그러므로 옛 조상들이 일시적인 약속들만을 바랐다고 꾸며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e].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율법은, 의식과 예식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지 않으며[f],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시민법적 규례들, 곧 유대인들의 국가에 특별히 맞추어졌던 규례들도 어느 국가에서든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g],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도 도덕적이라 불리는 계명들에 대한 순종에서 자유롭지 않다[h]. 우리는 도덕법을, 그 온전한 범위에서 취한 십계명 전체로 이해한다.

a. 사도행전 26:22,23; 베드로후서 3:2; 누가복음 24:44; 로마서 3:31; 갈라디아서 3:21,23,24 · b. 창세기 3:15; 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8,14; 고린도전서 10:2,3,4; 누가복음 1:69,70; 사도행전 3:24; 이사야 53:1-12 · c. 다니엘 9:17; 로마서 8:34; 요한일서 2:1; 히브리서 7:25; 디모데전서 2:5; 요한복음 14:6 · d. 갈라디아서 4:4,5; 사도행전 20:28; 빌립보서 2:7,8 · e. 사도행전 26:6,7; 로마서 4:11; 갈라디아서 3:9; 히브리서 11:10,16,35 · f. 갈라디아서 4:9,10; 골로새서 2:14,16,17; 히브리서 9:9,10 · g. Acts 29.9, 10, 25.; 신명기 17:8-13; 로마서 13:1,5; 디도서 3:1; 베드로전서 2:13,14 · h. 마태복음 5:17-48; 로마서 13:8,9,10; 에베소서 6:1,2,3; 야고보서 2:8,9,10,11,12; 로마서 7:25; 로마서 3:31; 마태복음 7:12.

제8조. 세 신경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세 신경, 곧~~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흔히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것은~~ 철저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하니, 이는 그것들이 성경의 가장 확실한 ~~근거들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의 개정 (1647년)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흔히 사도신경이라 불리는 것의 이름으로 통하는 신경들은 철저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하니, 이는 그것들이 성경의 가장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9조. 원죄, 곧 출생의 죄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원죄는 아담을 본받는 데 있지 않으니 (이는 펠라기우스파가 헛되이 말하는 바이다), 오히려 그것은 자연적으로 아담에게서 ~~난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본성의 결함과 부패로서,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본래의 의를 ~~매우 멀리 떠나 있고~~, 그 자신의 본성상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하여 ~~육신은 항상 영을 거슬러 욕심을 내며~~,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의 오염은 심지어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은, 헬라어로 φρόνημα σαρκός라 불리며 혹자는 육신의 지혜로, 혹자는 육욕으로, 혹자는 육신의 성향으로, 혹자는 육신의 욕망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나, 사도는 사욕과 정욕이 ~~그 자체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원죄는[a] 아담을 본받는 데 있지 않으니, 이는 펠라기우스파가 헛되이 말하는 바이다[b]. 오히려 그것은, 전가된 그의 첫 죄와 더불어[c], 자연적으로 아담에게서 전파되는 모든 사람의 본성의 결함과 부패로서,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본래의 의를 전적으로 박탈당하였고[d], 그 자신의 본성상 오직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e]. 그리하여 육신의 정욕은, 헬라어로 φρόνημα σαρκός라 불리며 혹자는 육신의 지혜로, 혹자는 육욕으로, 혹자는 육신의 성향으로, 혹자는 육신의 욕망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f],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g]. 그리고 이러한 본성의 오염은 심지어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으니[h], 이로 말미암아 육신은 항상 영을 거슬러 욕심을 낸다[i]. 그리고 중생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나[k], 사도는 사욕과 정욕이 참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죄라고 고백한다[l].

a. 시편 51:5; 요한복음 3:5,6 · b. 욥기 14:4; 욥기 15:14; 로마서 6:6; 요한복음 3:3,5,7 · c. 로마서 5:12-19; 창세기 2:17; 고린도전서 15:22 · d. 골로새서 2:13; 로마서 7:18; 전도서 7:29 · e. 창세기 6:5; 창세기 8:21; 예레미야 17:9; 로마서 7:8; 야고보서 1:14 · f. 로마서 8:7; 고린도전서 2:14; Col. 1.27. · g. 에베소서 2:3; 로마서 8:6 · h. 잠언 20:9; Rom. 7.17, 20, 23, 25.4. · i. 갈라디아서 5:17 · k. 로마서 8:1,13; 요한복음 3:18 · l. 로마서 7:17,20.

제10조. 자유의지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의 상태는, 자기 자신의 본성적 힘과 선행으로는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는 데로 ~~돌아키고~~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능력이 없다. 그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도록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한다.

회의의 개정 (1647년)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의 상태는, 자기 자신의 본성적 힘과 선행으로는 믿음과 하나님을 부르는 데로 돌이키거나 준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a].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능력이 없다[b]. 그 은혜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도록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우리 안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일하여 우리의 의지를 선한 것으로 결정하며[c], 또한 우리가 선을 향한 그 의지를 가질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한다[d].

a. 에베소서 2:1,5; 고린도전서 2:14; 에베소서 2:8,9,10; 요한복음 6:44,65 · b. 로마서 8:8; 히브리서 11:6 · c. 에스겔 11:19,20; 에스겔 36:26,27; 예레미야 31:32,33; 히브리서 8:10,11; 빌립보서 2:12,13; 요한복음 6:45; 에베소서 1:19,20; 고린도전서 4:7 · d. 히브리서 13:21; 빌립보서 1:6; 히브리서 12:2; 베드로전서 5:10; 데살로니가전서 5:23,24; 열왕기상 8:57,58.

제11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칭의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회의의 개정 (1647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나~~,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적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가장~~ 건전한 교리이며 위로로 매우 충만하다. ~~이는 칭의에 관한 설교에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다~~.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으니,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죄 사함을 받는다[a]. 이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적 때문도 아니고 그것들에 의한 것도 아니요[b], 그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이며[c],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d], 그의 모든 순종과 속상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되고[e],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붙잡히고 의지되기 때문이다[f].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는 건전한 교리이며 위로로 매우 충만하다[g].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범죄 가운데 계속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h].

a. 로마서 4:5,6,7; 시편 32:1,2 · b. 로마서 3:20; 갈라디아서 2:16; 갈라디아서 3:10,11; 빌립보서 3:9 · c. 로마서 3:24; 디도서 3:7 · d. 로마서 3:24,25; 로마서 5:1; 고린도후서 5:18,19 · e. 로마서 5:9,17,18,19; 로마서 3:25,26; 로마서 4:6,24; 고린도후서 5:21 · f. 로마서 3:22,25,26,28; 갈라디아서 2:16; 이사야 28:16; 로마서 9:33; 베드로전서 2:6; 빌립보서 3:9 · g. 디모데후서 1:13; Rom. 5.1, 2, [·], 11.; 로마서 15:13; 베드로전서 1:8 · h. 시편 68:20,21; 출애굽기 34:6,7; 누가복음 13:3,5.

제12조. 선행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비록~~ 믿음의 열매들이요 칭의 뒤에 따르는 선행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견딜 수 없으나, 그럼에도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쁘고 받으실 만하며,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솟아나오니, 그리하여 그것들에 의하여 살아 있는 믿음이, 나무가 ~~열매로~~ 분별되는 것처럼, ~~그만큼~~ 분명히 알려질 수 있다.

회의의 개정 (1647년)

믿음의 열매들이요[a] 칭의 뒤에 따르는[b] 선행은 우리의 죄들을 제거할 수 없고[c]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견딜 수 없으나[d], 그럼에도 그것들은,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e],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쁘고 받으실 만하며[f], 참되고 살아 있는 믿음에서 필연적으로 솟아나오니[g], 그리하여 그것들에 의하여 살아 있는 믿음이, 나무가 열매들로 분별되는 것처럼, 분명히 알려질 수 있다[h].

a. 갈라디아서 5:6; 야고보서 2:17,18,22 · b. 디도서 2:14; 디도서 3:7,8; 에베소서 2:8,9,10 · c. 로마서 3:20,21; 로마서 4:4-9; 다니엘 9:18,19 · d. 느헤미야 13:22; 시편 143:2; 욥기 9:14,15,19,20 · e. 출애굽기 28:38; 요한계시록 8:3,4 · f. 베드로전서 2:5; 히브리서 13:16,20,21; 골로새서 1:10; 빌립보서 4:18 · g. 야고보서 2:26; 1 Joh. 1.4. · h. 야고보서 2:18,22; 요한복음 15:4,5; 요한일서 2:3,5; 마태복음 12:33.

제13조. 칭의 이전의 행위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화~~ 이전에 행해진 행위들은 하나님께 ~~즐겁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은 사람을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하지도 못하고, (스콜라 학자들이 말하듯이) 적합성에 의한 은혜를 공로로 얻지도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해지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바는~~, 그것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의의 개정 (1647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 이전에 행해진 행위들은 하나님께 기쁘지 아니하니[a], 이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b]. 또한 그것들은 사람을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하지도 못하고, (스콜라 학자들이 말하듯이) 적합성에 의한 은혜를 공로로 얻지도 못한다[c].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해지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그것들은 죄악된 것이다[d].

a. 디도서 1:15,16; Matth. 7.1[·].; 로마서 8:8; 잠언 15:8,26; 잠언 21:27; 로마서 3:12 · b. 히브리서 11:5,6; 갈라디아서 5:6 · c. 디모데후서 1:9; 요한복음 1:13 · d. 로마서 8:7,8; 학개 2:14; 이사야 58:1-5; 이사야 66:2,3.

제14조. 의무 이상의 공로 행위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하나님의 계명들 외에,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행하는 자발적 행위들, 곧 그들이 의무 이상의 공로 행위라 부르는 것들을 가르치는 일은 교만과 불경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이는 그것들로써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마땅한 의무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하라, 하셨다.

회의의 개정 (1647년)

하나님의 계명들 외에,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 행하는 자발적 행위들, 곧 그들이 의무 이상의 공로 행위라 부르는 것들을 가르치는 일은[a] 교만과 불경건 없이는 있을 수 없다[b]. 이는 그것들로써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마땅한 의무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명령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하였노라 하라, 하셨다[c].

a. 마태복음 5:48; 마가복음 12:30,31; 빌립보서 4:8,9 · b. 욥기 9:2,3,20,21; 시편 143:2; 잠언 20:9; Phil. 3.8, 10 15. · c. 누가복음 17:7,8,9,10.

제15조. 죄 없으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에 관하여

잉글랜드 교회 (1638년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본성의 참됨 안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되 (오직 죄는 제외하고), 그 죄로부터 그는 그의 육신에 있어서나 그의 영에 있어서나 완전히 자유로우셨다. 그는 흠 없는 어린양이 되시려고 오셨으니, 곧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이시다. 그리고 (성 요한이 말하듯이) 그 안에는 죄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비록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많은 일에 실수하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회의의 개정 (1647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본성의 참됨 안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되, 오직 죄는 제외하고[a], 그 죄로부터 그는 그의 육신에 있어서나 그의 영에 있어서나 완전히 자유로우셨다[b]. 그는 흠 없는 어린양이 되시려고 오셨으니[c], 곧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d] 단번에 드리심으로써[e]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이시다[f]. 그리고 (성 요한이 말하듯이) 그 안에는 죄가 없었다[g]. 그러나 우리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비록 세례를 받고 중생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많은 일에 실수하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h].

찰스 헐, 의장.
헨리 로브로, 서기.
아도니람 바이필드, 서기.

a. 이사야 53:3,4,5; 히브리서 2:17; 히브리서 4:15 · b. 누가복음 1:35; 사도행전 3:14; 요한복음 14:30; 고린도후서 5:21; 히브리서 7:26 · c. 베드로전서 1:19 · d. 에베소서 5:2 · e. 히브리서 9:26,28; 히브리서 10:10,12 · f. 요한복음 1:29 · g. 요한일서 3:5 · h. 야고보서 3:2; 요한일서 1:8,10.

© 2026 Westminster 1647 :: https://westminster1647.com/ko/correo